

사회계층의식의 변동에 관한 연구: 3차 ~ 5차 노동패널자료의 비교분석

이병훈*·윤정향**

이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의 3차와 5차자료를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사회계층의식 변동에 관한 횡단비교분석과 종단분석을 탐색적으로 시행한 결과, 개인과 가구의 다양한 속성요인들이 복합적인 인과관계를 구성·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사회계층의식이 고정불변이라기 보다는 개인과 가구 그리고 사회 자원의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여 변동되는 가변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사회계층의식의 형성·변동에 대한 영향요인의 인과관계구조 역시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검증하고 있다. 또한, 전체·취업자·임금노동자집단에 대한 횡단분석과 종단분석을 통틀어 사회계층의식의 위계서열과 변동에 있어 생활여건과 사회관계의 만족도가 일관되게 유의한 정적(+)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혀 사회계층의 귀속의식에 대해 주관적인 삶의 질 지표(subjective indicator for quality of life)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분석대상의 집단별로는 횡단·종단분석을 통해 사회계층의식의 형성과 변동에 일관되게 작용하는 유의한 변인들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 역시 특기할 만하다. 전체집단에 있어서는 금융자산이, 취업자집단에 대해서는 본인의 직업위세가, 그리고 임금근로자집단에 대해서는 주거형태(월세 또는 전세)가 사회계층의 귀속의식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보여주어, 분석대상의 집단에 따라 계층의식 형성 및 변동에 대해 상이한 영향요인이 작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I. 머리말

우리 사회는 지난 세기 동안 압축적 사회변동을 겪어오면서 계층구조 역시 심대한 변화를 경험하여 왔다.(신광영 1999; 조은 2002) 지난 1990년대에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및 정보화)의 논리가 국내 사회경제체제에 전면 관철되는 거대한 구조변동을 맞이함에 따라 산업구성·고용관계·생활양식 등의 재편과 더불어 사회 성원들의 계층지위 또한 크게 변화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외환위기를 계기로 기업들에 의한 인력조절·성력화·고용외부화가 유행처럼 광범하게 전개됨에 따라 우리 사회의 중산층이 대거 몰락함과 동시에 비정규직·영세사업체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소위 빈곤노동(working poor)집단이 날로 증가되는 한편, 지식·정보·금융 및 부동산 상품을 활용하여 수십억의 연봉 수입 또는 재산증식을 보장받는 ‘신호 상류(부자)집단’이 등장하였다. 이같은 계층구조 변동은

통해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의 경향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한편으로 계층의 구조화가 시대적인 계기를 배경으로 급속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는 계층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서 계층연구의 훌륭한 토양을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계층연구가 사회학의 가장 많은 연구성과를 낳은 분야의 하나로 인정되는 것도 이러한 사회적 여건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실제, 사회계층의 이론적 측면에서 계층 또는 계급의 구조·형성·투쟁이라는 각 연구범주별로 적잖은 성과들이 축적되어 왔다.(신광영 2005) 그런데, 이같이 활발히 전개되어온 계층·계급연구에 있어 사회계층구조와 계층주체 행위를 매개하는 핵심적인 연결고리임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계층의식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해 왔다.(김병조 2000) 더욱이, 사회계층구조와 마찬가지로 계층의식 역시 가변적일 수 있는 만큼 그 변동여부를 확인·설명하는 연구가 모색될 수 있으나, 기존 연구들은 계층지위에 대한 결정요인의 횡단적 분석으로 그치거나 종단분석의 경우에도 주로 세대간 또는 세대내의 중장기적인 계층/직업이동 및 소득계층변동에 관한 경험적인 논증에 국한되어 계층의식의 변동을 추적하는 시계열적인 분석이 거의 부재한 실정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이 같은 연구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사회계층의식의 변동을 설명하기 위한 인과관계를 탐색적으로 검출하는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3차와 5차 노동패널자료의 가공을 통해 전체집단과 취업자집단 그리고 임금노동자집단으로 구분하여 계층의식에 대한 종단 및 횡단분석을 동시에 적용함으로써 각 집단별로 계층의식 변동의 인과메카니즘을 비교·분석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II. 관련 연구검토와 분석모형

기존 연구에서는 사회계층의식(social status consciousness)의 개념이 계급의식(class consciousness)과 명확한 구분없이 다양하게 정의되어 사용됨으로써 상당한 혼란을 초래해오고 있다.(장상수 1996) 계급의식이 생산수단의 소유관계 및 생산수단의 권력관계 등에 기반하고 있는 구조적 관점에서 자본주의체제의 주요 계급주체들이 보유하고 되는 주관적 의식성향¹⁾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사회계층의식은 사회 구성원들이 주관적으로 자신의 사회경제적 위계상 지위를 인지·판단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²⁾(Jackman & Jackman 1973; Yoon & Seok 1996) 다시 말해, 계층의식은 사회계층의 위계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자리매김하거나 특정 계층지위에 주관적인 일체감을 귀속시키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물론, 사회계층구조가 자본주의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생산관계에 의해 기본적으로 규정받게 된다는 점에서 사회구성원들의 계층의식 또는 주관적 계층지위인식

1) Mann(1973)은 계급의식을 계급정체성(class identity), 계급적대감(class opposition), 계급전체성(class totality), 대안체제 인식(alternative)의 4가지 요소로 구성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 이에 대해 사회계층의식(social status consciousness)과 계급의식(class consciousness)이 명확한 구분없이 혼용되고 있는 바, 이 글에서는 계층의식이라는 개념으로 통일하여 사용할 것임을 밝혀둔다.

* 이병훈(중앙대 사회학과 부교수)

** 윤정향(중앙대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subjective status identification)은 계급적인 의식성향과 전연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계층의식은 생활세계의 다양한 사회적 존재조건에 의해 영향받음으로써 종래의 맑스주의 계급론에서 강조되는 생산영역의 계급관계 틀로 단순히 환원되기 보다는 매우 복합적이며 가변적인 속성을 담지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³⁾

계층의식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이론적 관점과 분석방법에 있어 다양한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⁴⁾ 우선, 이론적 관점으로는 계층의식(또는 계급의식)의 형성배경을 둘러싸고 전통적으로 생산관계에 입각하는 맑스주의적 구조주의 또는 관계주의시각(structural or relational perspective)과 사회경제적 시장자원(예: 소득, 직업, 교육 등)의 보유 수준을 강조하는 베버주의적 사회계층이론으로 구분되어 왔다.(Vanneman & Pampel 1977; Simpson, Stark & Jackson 1988; 조돈문 1994; 안치민 1992; 장상수 1996) 그런데, 최근에는 계층의식 또는 계급정체성이 생산관계의 구조에 의해서나 사회경제적인 지위에 의해 단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기반하는 일상생활의 공통경험과 정치·교육·문화 등의 영역에서의 의도적인 상호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계층(또는 계급)구조화(Structuration)와 관련지어 이해하려는 과정적 접근이 주요하게 부각되고 있다.(안치민 1992) 이러한 접근에 따르면 계층이나 계급이 주어지는 고정적 실체가 아니라 생활체험과 담론적 실천에 의해 그 정체성이 형성·변용되는 구성체로 논의함으로써 계층의식에 대한 보다 정교한 분석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과정적 분석관점에서는 계층(귀속)의식이 직업·소득·교육·고용지위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위상 및 생산관계 위치에 의해서 뿐 아니라 생활양식과 소비행태의 선택과 구별짓기의 문화적 상징 등과 같은 보다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받아 형성되는 것으로, 그리고 국면적 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가변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Giddens 1973; Bourdieu 1984; 신광영 1997) 따라서, 계층의식은 경제적 계급공간이나 계층지위를 단순히 반영하기 보다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들의 작용을 통해 일정한 '구조적 부조응'⁵⁾을 보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존립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안치민 1992; 장상수 1996) 이에 더하여, 사회적 관계에 주목하여 계층의식 또는 계층정체성의 형성을 논의하는 연구관점의 하나로서 부모·배우자형제자매친지 등과 같은 핵심 준거집단(key reference group)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계층의식이 객관적 계층지위와 괴리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준거집단과정이론이 제시되기도 한다.(Kelly & Evans 1995)

이처럼, 계층의식의 형성과 변동이 경제구조적 논리에 따라 자동적/필연적으로 전개되기 보다는

3) 유사한 맥락에서 Jackman(1983)과 신광영(2005)는 계급의식 역시 사회적 분업 또는 경제적 계급관계 뿐만 아니라 경제외적 영역의 다양한 사회담론 또는 문화적·표출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받으며 형성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조돈문(1994)은 우리나라의 노동계급내에서 계급의식이 특권집단-핵심집단-주변집단의 위계적 편차를 드러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기도 하다.

4) 김병조(2000)에 따르면, 그동안 계층의식 연구는 주관적 계층귀속의식·계층의식 분포·계층구조이미지 등을 포괄하는 계층관에 대한 연구와 계층의식의 사회적 특성 및 영향과 관한 계층성향 연구로 대별할 수 있다.

5) 반면에, Vanneman & Cannon(1987)은 객관적인 사회계층과 계층귀속의식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받고 있다는 이론적 전제위에서 그 배경원인들을 규명하는 연구들이 매우 활발하게 축적되어 왔음을 확인케 된다.(권성일 1994) 그동안 계층의식의 대표적인 결정요인으로 논구되어온 변수로는 베버의 사회계층 지위지표라 할 수 있는 직업·소득수준·교육(학력)을 꼽게 된다. 물론, 연구자들에 따라 실증분석 결과에 있어 그 영향강도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바, 김경동·최태룡(1983)과 장상수(1996) 그리고 김병조(2000)는 소득>교육>직업(위세)의 순서로 그 영향정도 차이를 보이는 한편, Yoon & Seok(1996)은 교육>소득>직업(위세)으로 다른 순서를 보이기도 한다.⁶⁾ 또다른 기본적인 개인속성변인으로 성별 역시 계층의식에 대한 유의한 분석지표로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Simpson 등(1988)과 Davis와 Robinson(1988)은 계층의식의 성특수모형(gender-specific model of class identification)을 제시하여 남녀간에 계층의식의 결정메카니즘이 상이하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검증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하게 국내 연구에서 김병조(2000)와 장상수(1996) 역시 주관적 계층인식에 있어 남녀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장상수(1996)는 결혼관계(맞벌이부부 포함)와 연령층에 따른 사회집단별로 계층의식에 대한도가 기존 사회경제 지위변인(소득, 교육, 직업)의 영향이 상이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보여줌으로써 이들 개인속성변인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드러내 주기도 하였다. 또한, 차종천(1987)은 우리사회의 특수 현상으로 출신지역이 계층이동 기회 및 생활경험 등의 차이로 인해 주관적 계층의식의 결정요인들에 유의하게 작용하는 것(예: 호남지역출신의 경우 주관적 계급의식과 객관적 계급지표간의 가장 높은 조응성을 보이고 있음)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김병조(2000)는 개인들의 생활만족이 자신의 계층지위와 유의한 정적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도 한다.

사회구성원들의 개인속성 못지않게 이들의 생활단위를 구성하는 가구의 속성 역시 계층의식의 형성·결정에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논구되고 있다. 우선, 가구의 거주지가 사회계층이론에서 일반적으로 생활수준을 드러내는 변인으로서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역간 불평등성장이 초래하는 사회적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특수 지표로서 사회계층 관련 여러 연구(예: 신광영 1999; 김진옥정 의철 2004)에서 사용되고 있다. 또한, 가구의 주거주택유형이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생활수준과 불평등수준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라는 점을 착안하여 계급의식 또는 사회계층구조의 분석(예: 신광영 2003; 조돈문 1994)에 포함되고 있으며, 가구내 취업가구원 수 역시 가구의 경제능력을 대표하는 변인⁷⁾으로 사회계층연구(예: 이계경 1992; 김진옥정 의철 2004)에서 활용되고 있다. 가구소득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익히 폭넓게 분석되어오고 있는 가운데, 그 가구소득의 내역을 세분화하여 계층지위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연구도 존재하고 있다. 이를테면, Hodge와 Treiman(1968)은 주관적 계층의식에 대한 주·차·채권·부동산·임대보유 등의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반면, 권성일(1994)와 조돈문(1994)은 각각 월근로소득과 가구의 비근로과외소득을 계급의식에 대한 영향요인의 하나로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유의한 상관

6) Jackman과 Jackman(1973)은 미국민의 계층의식을 결정함에 있어 한국에서와는 달리 직업·소득·교육의 순서로 유의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7) 이계경(1992)은 기존 사회계층연구에서 남성가구주의 취업지위를 중심으로 가구의 계층적 지위를 분석하는 것을 남성편향적인 연구관점으로 비판하며,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대 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가구내 취업자수로 가구의 경제적 능력을 측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최근 연구를 통해 계급 또는 계층지위를 주요하게 구별짓는 지표로서 생활양식과 소비패턴 그리고 문화활동이 크게 부각되는 가운데, 계층의식에 대한 설명변인으로 가구 소비지출규모, 소비재 보유현황, 문화활동비 등이 분석되고 있기도 한다.(Yoon & Seok 1996; 차종천 1997; 장미혜 2002; 최셋별 2002) 이와 더불어, 여러 국내외 연구에서 가구차원의 사회적 자원(social resource)으로서 부모의 직업과 학력(안치민 1992), 그리고 친지중의 유력인사 존재여부(Jackman & Jackman 1973; Hodge & Treiman 1968; 이재경 1992)가 계층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후자 요인(친척유력인사)에 대해 Jackman과 Jackman(1973)은 상위신분친지(High Status Contacts)이라는 분석지표를 만들어 계층의식에 대한 영향여부를 검증한 결과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하나 주관적 계층지위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위변인들의 영향에 매개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취업자 및 임금노동자집단으로 국한해서는 (앞서 살펴본 본인의 직업위세 이외에) 직장의 고용규모(안치민 1992; 조돈문 1994; 권성일 1994)와 노조 가입여부(Simpson 등 1988; 권성일 1994)가 계층의식에 대한 주요 영향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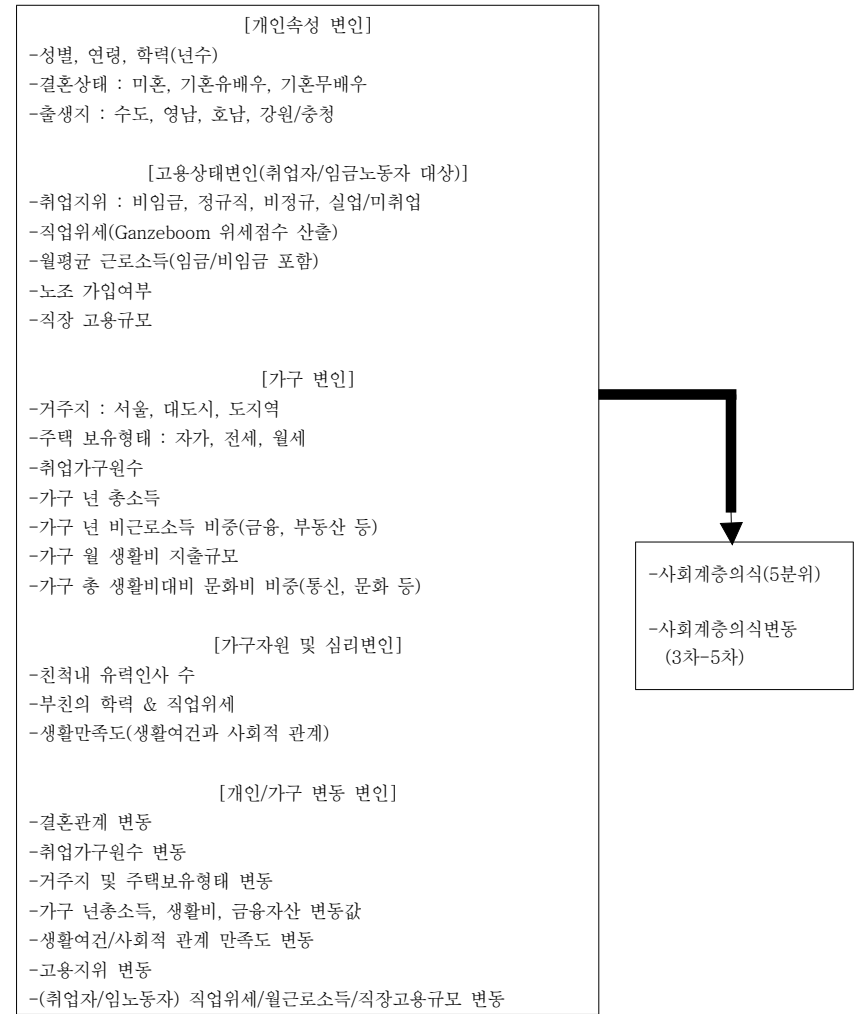
이같이 계층의식(또는 계층지위)의 영향요인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경험적 분석에 더하여, 계층의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들에 있어 종속변수인 계층의식 범주측정과 분석단위에 대한 상이한 접근을 보여주기도 한다. 특히, 계층의식 범주와 관련해서 김병조(2000)가 잘 정리하고 있듯이 국내 연구는 5단계에서부터 10단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계층(귀족)의식의 범주측도를 적용해오고 있어 그 연구결과에 대한 일관된 해석을 제시하는 데에 적잖은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반면, 서구의 연구에서는 대체로 상류층-중간계층-노동계층-하류층으로 구분하는 4층위 범주를 적용하거나 Hodge & Treiman(1968)과 Jackman & Jackman(1973)과 같이 5분위 계층범주를 적용하되 중하계층을 대신하여 노동계층(working class)의 계급적 범주를 포함시켜 분석하고 있어 우리의 연구와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⁸⁾ 또한, 분석단위에 있어서도 대다수의 연구가 개인의 계층의식을 분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연구(예: Yoon과 Seok 1996; 이재경 1992)에서는 가구를 단위로 그 계층귀속을 분석하고 있는데, 특히 이재경(1992)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생활-소비-재생산의 기본단위가 되는 가족을 매개로 사회불평등구조가 관찰-세습되므로 계층지위 분석에서 가구단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의 관련 내용을 종합해보면, 사회계층의식의 변동을 규명하기 위한 이후의 분석에 검토대상이 되는 변인들은 [그림 1]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다. 설명변수로서 선행연구에서 검토되고 있는 영향요인들을 대부분 포괄하여 사회계층의식의 변동에 관한 중단 및 횡단분석에서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기존 연구에서 검토되지 않은 새로운 변수로서 가구내 지위와 부채를 탐색적으로 추가하여 분석하였다.⁹⁾

8) 이같이 계층(의식)범주의 측정방식에 따라 특히 연구자들간에 중간층 귀족 인구의 비중 차이를 둘러싼 논란이 빚어지기도 하였다.(김병조 2000) 참고로, Kluegel, Singleton, Starnes(1977)는 주관적 계급인식 또는 계층의식에 관한 단일범주형 측정지표를 대신하여 다항목 측정지표를 개발-검증하였으나, 여전히 단일측정지표가 유효한 것으로 입증하였다.

9) 가구내 지위는 선행 연구들이 (남성)가구주의 개인속성(직업, 학력 등)을 위주로 분석하는 것을 대신하여

[그림 1] 사회계층의식 변동의 분석모형



피조사자 개인의 가구상 위치를 통제하기 위해 포함시켰으며, 부채 규모는 가구의 소비지출규모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지표로 판단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기존 연구(예: Kelly & Evans 1985, Bourdieu 1984)에서 계층의식에 대한 종교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참조하여 초기 분석에 종교변인을 포함시켰으나 횡단-중단 분석 모두에 별 유의한 결과를 보이질 않아 최종분석모형에는 제외하였음을 밝혀둔다.

III. 연구방법

1. 분석 자료

한국노동패널자료에서 '사회계층의식' 문항¹⁰⁾은 개인의 주관적 계층지위 의식을 묻는 형태로 3차년도와 5차년도에 조사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각 시점의 계층의식 영향원인을 찾는 횡단분석과 두 시점 간 계층의식 변동의 영향원인을 찾는 종단분석에 이용하기 위해 두 연도의 개인과 가구자료를 통합하여 분석데이터로 구성하였다. 또한 분석에 필요하나 두 시점의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출생지(1차), 부모학력(1차), 부모직업(1차), 주택보유 형태(1차, 2차), 문화비지출(2차)에 관한 정보는 1차년도와 2차년도의 패널자료에서 추가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자료에서 종속변수인 '사회계층의식'에 응답한 사례(7,946)를 중심으로 표집하였으며, 이를 다시 전체집단(미취업/실업 포함), 취업자집단(비임금노동자 포함), 임금노동자집단으로 구분하였다.¹¹⁾ 특히, 3차년도와 5차년도의 횡단분석을 비교하기 위해 두개 패널자료에 동시에 존재하는 개인사례만을 추출하여 분석에 사용함으로써 동일인의 사회계층의식 변화를 보다 엄밀하게 추적하고자 하였음을 밝혀둔다. 이렇게 추출된 분석표본(3차와 5차)의 기본 속성은 <표 1>과 같다.

- 10) 사회계층지위를 묻는 설문문항은 3차(P03175)와 5차조사(P05364)에서 동일하게 “택은 가장의 사회적 지위로 볼 때, 우리 사회의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가?”로 표현되어 있다. 피조사자 가구의 계층적 지위를 5분위 위계상(상류층-중상류층-중류층-중하류층-하류층)의 위치로 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11) 집단분류 기준은 '취업상태', '종사상지위', '1주일간 구직여부' 변수를 이용하여 정규직(1), 비정규직(2), 비임금/자영업(3), 실업(4), 미취업(5)의 값을 갖는 '취업지위' 변수를 생성하였으나 최종 분석에서는 '실업'과 '미취업'을 통합하였다. 이 기준을 이용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임금노동자 집단'으로, 여기에 '비임금/자영업'을 포함하여 '취업자집단'으로, 다시 여기에 '실업/미취업'을 포함하여 '전체집단'으로 구성하였다.

<표 1> 분석대상의 인구학적 속성

		사회계층 의식					전체
		하류층	중하류층	중류층	중상류층	상류층	
[3차] 성별	여성	1,048(24.5)	1,663(38.8)	1,420(33.2)	143(3.3)	9(0.2)	4,283(53.9)
	남성	824(22.5)	1,490(40.7)	1,186(32.4)	155(4.2)	8(0.2)	3,663(46.1)
	전체	1,872(23.6)	3,153(39.7)	2,606(32.8)	298(3.8)	17(0.2)	7,946(100)
연령	청년층	266(16.3)	663(40.6)	626(38.4)	73(4.5)	3(0.2)	1,631(20.5)
	장년층	314(17.1)	774(42.2)	681(37.1)	63(3.4)	2(0.1)	1,834(23.1)
	중년층	730(24.5)	1,146(38.4)	984(33.0)	119(4.0)	6(0.2)	2,985(37.6)
	노년층	562(37.6)	570(38.1)	315(21.1)	43(2.9)	6(0.4)	1,496(18.8)
	전체	1,872(23.6)	3,153(39.7)	2,606(32.8)	298(3.8)	17(0.2)	7,946(100)
학력	무학	280(47.5)	218(36.9)	91(15.4)	1(0.2)	0(0.0)	590(7.4)
	초졸	494(39.4)	524(41.8)	224(17.9)	12(1.0)	0(0.0)	1,254(15.8)
	중졸	358(31.5)	480(42.2)	279(24.5)	21(1.8)	0(0.0)	1,138(14.3)
	고졸	586(19.0)	1,311(42.6)	1,070(34.8)	110(3.6)	2(0.1)	3,079(38.8)
	전문·졸이상	154(8.2)	620(32.9)	941(49.9)	154(8.2)	15(0.8)	1,884(23.7)
전체	1,872(23.6)	3,153(39.7)	2,605(32.8)	298(3.8)	17(0.2)	7,945(100)	
혼인 상태	미혼	316(19.3)	666(40.6)	584(35.6)	73(4.4)	2(0.1)	1,641(20.7)
	기혼무배우	366(45.0)	297(36.5)	140(17.2)	9(1.1)	1(0.1)	813(10.2)
	기혼유배우	1,190(21.7)	2,190(39.9)	1,882(34.3)	216(3.9)	14(0.3)	5,492(69.1)
전체	1,872(23.6)	3,153(39.7)	2,606(32.8)	298(3.8)	17(0.2)	7,946(100)	
취업 지위	미취업/실업	923(26.6)	1,295(37.3)	1,120(32.3)	123(3.5)	8(0.2)	3,469(43.9)
	비정규	239(37.6)	267(42.0)	118(18.6)	12(1.9)	0(0.0)	636(8.1)
	비임금	346(20.7)	730(43.6)	528(31.5)	69(4.1)	2(0.1)	1,675(21.2)
	정규직	350(16.5)	843(39.8)	827(39.0)	93(4.4)	7(0.3)	2,120(26.8)
	전체	1,858(23.5)	3,135(39.7)	2,593(32.8)	297(3.8)	17(0.2)	7,900(100)
[5차] 성별	여성	872(20.4)	1,557(36.4)	1,678(39.2)	164(3.8)	12(0.3)	4,283(53.9)
	남성	653(17.8)	1,411(38.5)	1,462(39.9)	127(3.5)	10(3.5)	3,663(46.1)
	전체	1,525(19.2)	2,968(37.4)	3,140(39.5)	291(39.5)	22(0.3)	7,946(100)
연령	청년층	168(12.9)	490(37.5)	583(44.6)	64(4.9)	2(0.2)	1,307(16.4)
	장년층	210(12.1)	674(38.9)	798(46.1)	46(2.7)	4(0.2)	1,732(21.8)
	중년층	590(18.6)	1,185(37.3)	1,259(39.6)	137(4.3)	7(0.2)	3,178(40.0)
	노년층	557(32.2)	619(35.8)	500(28.9)	44(2.5)	9(0.5)	1,729(21.8)
	전체	1,525(19.2)	2,968(37.4)	3,140(39.5)	291(3.7)	22(0.3)	7,946(100)
학력	무학	279(47.0)	190(32.0)	120(20.2)	4(0.7%)	0(0.0)	593(7.5)
	초졸	411(32.3)	505(39.6)	345(27.1)	13(1.0)	0(0.0)	1,274(16.0)
	중졸	310(26.2)	509(43.0)	348(29.4)	15(1.3)	1(0.1)	1,183(14.9)
	고졸	410(14.6)	1,172(41.8)	1,139(40.6)	76(2.7)	7(0.2)	2,804(35.3)
	전문대이상	115(5.5)	592(28.3)	1,188(56.8)	183(8.7)	14(0.7)	2,092(26.3)
전체	1,525(19.2)	2,968(37.4)	3,140(39.5)	291(3.7)	22(0.3)	7,946(100)	
혼인 상태	미혼	234(16.0)	554(37.8)	615(41.9)	62(4.2)	2(0.1)	1,467(18.5)
	기혼독신	388(43.1)	304(33.8)	197(21.9)	10(1.1)	1(1.1)	900(11.3)
	기혼유배우	903(16.2)	2,110(37.8)	2,328(41.7)	219(3.9)	19(0.3)	5,579(70.2)
전체	1,525(19.2)	2,968(37.4)	3,140(39.5)	291(3.7)	22(0.3)	7,946(100)	
취업 지위	실업/미취업	751(23.3)	1,137(35.3)	1,198(37.2)	121(3.8)	15(0.5)	3,222(40.8)
	비정규	228(33.3)	288(42.0)	159(23.2)	9(1.3)	1(0.1)	685(8.7)
	비임금/자영업	254(15.3)	656(39.4)	693(39.4)	59(3.5)	1(0.1)	1,663(21.1)
	정규	283(12.2)	865(37.3)	1,070(46.1)	99(4.3)	5(0.2)	2,322(29.4)
	전체	1,516(19.2)	2,946(37.3)	3,120(39.5)	288(3.6)	22(0.3)	7,892(100)

2. 변인설명과 분석방법

가. 독립/종속 변인

사회계층의식이 객관적 계급지위의 결정원인 외에도 개인 또는 가구의 계층 위치나 생활·소비 영역 관련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독립변인들을 개인속성변인, 고용상태변인, 가구변인, 가구자원 및 심리변인으로 범주화하여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계층 의식의 변동을 설명하기 위해 이번 분석에 포괄되는 독립변인들을 각 범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개인속성변인 중 ‘고정변인’을 보면 ‘성별’은 남성을 기준으로 더미변수로 구성하였으며 연령은 ‘연속형’으로 구성하였다. ‘출생지’는 1차년도의 개인변수인 출생지변수를 결합하여 수도권, 영남, 호남, 강원/충청 네 지역으로 재구성하였다. ‘학력연수’ 변수는 학력(학교수준)과 학력이수여부를 결합하여 ‘수학기간’으로 구성한 것이다. ‘학력이수여부’ 변수의 경우 졸업과 수료는 학력(학교수준)의 기간을 준용하였고, ‘재학중/휴학중’은 ‘해당학교 수학기간-1’을 부여하였으며, ‘중퇴’는 ‘해당학교 수학기간-2’를 부여하였다. 다만,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은 ‘졸업/수료 - 재학/휴학 - 중퇴’간에 ‘0.5’의 차이를 두었다. ‘변동변인’으로서 ‘연령층 변동’은 응답자의 세대이동 여부와 사회계층의식 변동과의 유의미한 인과적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개인들이 연령 세대의 변화(예: 청년층에서 장년층으로 진입)에 따라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뿐 아니라 계층 지위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에 있어 일정한 변화를 보일 수 있으므로 이를 검증하려는 의도에서 이 변인을 포함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연령층 변동’변인은 ‘무변동(세대변동 없음)’, ‘청년층(15-29세)에서 장년층(30-39세) 진입’, ‘장년층에서 중년층(40-59세) 진입’, ‘중년층에서 노년층(60세 이상)진입’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고용상태 변인은 ‘취업지위’ 변수는 (1) 취업형태, (2) 종사상지위, (3) 1주일간 구직여부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정규, 비정규, 비임금, 실업/미취업 4개의 값으로 구성하였다. ‘본인직업위세’ 변수는 개인의 직업을 직업의 사회·경제적 위계지수인 Ganzeboom 지수를 이용하여 점수화시킨 것이고, ‘노조가입 여부’ 변수는 ‘노조유무’ 변수와 ‘노조가입 여부’ 변수를 연산한 것이다. ‘직장고용규모’는 종업원 수를 질문하는 연속형 변수와 범주형 변수를 연산하여 범주화한 것이다. 고용상태 관련 ‘변동변인’으로서 ‘취업지위변동’은 정규직 및 비임금/자영업, 비정규직, 그리고 실업 및 미취업을 각각 2, 1, 0의 점수를 주어 3차년도와 5차년도간의 취업지위 변동을 측정하였던 것으로 미변동(0), 정규직이나 비임금/자영업으로 고용지위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향이동(+1~+2)’, 미취업/실업이나 비정규직으로 변했을 경우 ‘하향이동(-1~-2)’으로 드러내는 연속형의 값을 부여하였다. ‘고용규모변동’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써 고용규모의 변화가 없으면 무변동(0), 고용규모가 증대하였다면 ‘규모증대(+1)’, 규모가 감소하였다면 ‘규모감소(-1)’로 연속형 변수로 가공하였다. ‘직업위세 변동’과 ‘월평균근로소득변동’은 각각 5차년도와 3차년도간의 값 차이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가구변인에서 ‘주택보유형태’ 변수(3차년도의 경우)는 1차 패널과 2차 패널의 ‘입주형태’와

‘변동된 주거형태’ 변수를 추적하여 2차년도까지의 주택형태 변수를 만든 뒤, 3차년도의 ‘변동된 주거형태’ 변수와 결합하여 구성한 것이며, 5차년도도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취업가구원수’ 변수는 ‘취업지위’ 변수의 정규(1), 비정규(2), 비임금(3)으로 응답한 가구원의 수를 합산한 것이다. ‘가구년 총소득’은 가구 연간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을 합한 소득이며, 여기에서 연간근로소득을 제외한 것이 ‘가구년 총 비근로소득’이다. ‘월생활비 중 문화비 비중’은 3차년도에 ‘문화비’가 조사되지 않아 2차년도의 ‘월생활비’와 ‘문화비’ 변수를 활용하였으며, 5차년도에서는 해당 설문항목을 있어 그대로 환산하여 사용할 수 있었다. ‘금융자산’은 패널 자료에 금융자산을 묻는 5가지 변수를 합한 값이며, 부채는 6개의 부채를 묻는 변수를 합한 값이다. 이어 ‘변동변인’에서는 ‘거주지변동’의 경우 서울, 대도시, 도지역의 거주를 각각 2, 1, 0점을 주어 3차년도와 5차년도의 두 시점간에 거주지 ‘미변동’의 경우 ‘0’점, 서울이나 대도시로의 상향이동은 ‘+1~+2점’, 대도시나 도지역으로의 하향이동은 ‘-1~-2점’의 값을 부여하였다. ‘주택보유형태 변동’은 자가취득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주거변동이 여러 차례 있었다 하더라도 ‘자가상실과 자가미보유’는 ‘-1’, 자가의 계속유지는 ‘0’, 자가의 신규취득은 ‘1’로 두어 변동값이 ‘(-1)~(+1)’의 폭을 갖도록 하였다. ‘취업가구원수 변동’, ‘가구총소득(년) 변동’, ‘월생활비 변동’, ‘금융자산변동’은 모두 5차년도 금액에서 3차년도 금액을 뺀 그 차이값으로 산출하였다.

넷째, 가구자원 및 심리변인은 응답자의 계층의식에 물질적,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부모 및 친척 그리고 개인적 만족도를 포함하고 있다. ‘친척내 유력인사’는 가구별로 8개의 사회 유력인사 유형에서 해당되는 친척의 수를 합한 값이며, ‘생활만족도’는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해 구분되어진 ‘생활여건만족도’와 ‘사회적 관계 만족도’의 두 변인으로 분리하여 분석에 포함시켰었다. ‘부모학력’은 개인학력연수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학력수준(학교)과 학력이수여부(졸업 등)를 합하여 가공한 것이며, ‘부모의 직업위세’는 피조사자가 14살 때 부모의 직업력을 토대로 구성된 1차패널 변수를 활용하여 Ganzeboom 점수로 환산하였다. 변동변인으로는 ‘생활여건만족 변동’과 ‘사회적 관계만족 변동’이 있는데 각각 5차년도와 3차년도간의 차이값으로 가공하였다.

종속변인은 ‘사회계층의식’과 ‘사회계층의식 변동’이다. 분석을 위해 기존의 값을 하류층(1)-중하류층(2)-중류층(3)-중상류층(4)-상류층(5)으로 역코딩하였으며, ‘사회계층의식 변동’은 3~5차년도간의 차이값을 산출하여 활용하였다. <표 2>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분석변인들을 정리·제시하고 있다.

<표 2> 횡단분석과 종단분석의 변수에 대한 설명

변수 설명		변수값 정의
개인 속성 변인	고정	성별 연령 학력 혼인상태 출생지(1차년도)
	변동	연령층 변동 혼인상태 변동 취업지위 직업위세
	고정	월평균 근로소득 노조가입 여부 직장 고용규모 취업지위변동
	변동	직업위세 변동 월평균 근로소득 변동 직장고용규모 변동
고용 상태 변인	고정	로그/ 연속변수(임금/비임금 포함) 노조없음=-1, 미가입=0, 노조가입=1 1-29인=1, 30-299인=2, 300-999인=3, 1000인 이상=4
	변동	무변동=0, 상향이동=+1 ~ +2, 하향이동=-1 ~ -2
	고정	거주지 가구내 지위 주택 보유형태 취업가구원수 가구 총 소득(년) 가구 총 비근로소득(년) 가구 생활비(월) 생활비중 문화비(월) 금융자산액 부채액
	변동	거주지 변동 주택 보유형태 변동 취업가구원수 변동 가구 총소득 변동(년) 가구 생활비(월) 변동 금융자산규모 변동
가구 변인	고정	가구 총 소득(년) 가구 총 비근로소득(년) 가구 생활비(월) 생활비중 문화비(월) 금융자산액 부채액
	변동	거주지 변동 주택 보유형태 변동 취업가구원수 변동 가구 총소득 변동(년) 가구 생활비(월) 변동 금융자산규모 변동
	고정	친척내 유력인사(3차) 생활만족도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위세 생활여건만족 변동 사회관계만족 변동
	변동	친척내 유력인사(3차) 생활여건만족도(가족수입, 여가활동, 주거환경)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족관계, 친인척관계, 사회적 친분관계) 학력연수 자녀 14세때 부모 직업의 Ganzeboom 점수
중속변수	고정	사회계층 의식
	변동	사회계층 의식 변동

나.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패널자료의 3차와 5차 횡단분석은 중속변인(사회계층의식)의 서열범주를 감안하여 서열로짓(ordered logit)분석기법으로 적용하였으며, 3~5차 년도간의 사회계층의식 변동에 관해서는 일반선형회귀분석(ordinary least square)기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속성은

교차분석을 이용하였고, 전체 분석변인에 대해서는 기술통계를 정리-예시하고 있다.

3. 변인들의 기초통계

이번 실증분석 대상의 사례수를 살펴보면, 횡단분석의 경우 3차년도는 임금노동자 488사례, 취업자 940사례, 전체집단 1896사례가 각각 분석되었으며, 5차년도는 임금노동자 498사례, 취업자 966사례, 전체집단 1947사례가 분석대상이 되었다. 3-5차 년도간의 계층의식변동을 검증하는 종단분석에서는 임금노동자 806사례, 취업자 1,589사례, 전체집단 3,412사례가 분석되고 있다.¹²⁾ <표 3>과 <표 4>는 각각 사회계층의식에 대한 분석집단별 빈도와 분석변인들의 기술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표 3> 분석집단의 사회계층의식 분포

	사회계층의식					합계		
	하류층	중하류층	중류층	중상류층	상류층			
3차								
전체집단	215(11.3)	755(39.8)	812(42.8)	109(5.7)	5(0.3)	1,896(100.0)		
취업자	100(10.6)	400(42.6)	381(40.5)	56(6.0)	3(0.3)	940(100.0)		
임금노동자	52(10.7)	220(45.1)	195(40.0)	20(4.1)	1(0.2)	488(100.0)		
5차								
전체집단	192(9.9)	709(36.4)	956(49.1)	86(4.4)	4(0.2)	1,947(100.0)		
취업자	92(9.5)	345(35.7)	479(49.6)	48(5.0)	2(0.2)	96(100.0)		
임금노동자	53(10.6)	188(37.8)	238(47.8)	19(3.8)	0(0.0)	498(100.0)		
	사회계층의식 변동							
3~5차	-3.00	-2.00	-1.00	0.00	1.00	2.00	3.00	합계
전체집단	2(0.1)	53(1.6)	564(16.5)	1,820(53.3)	831(24.4)	139(4.1)	3(0.1)	3,412(100.0)
취업자	1(0.1)	22(1.4)	255(16.0)	841(52.9)	405(25.5)	64(4.0)	1(0.1)	1,589(100.0)
임금노동자		10(1.2)	133(16.5)	427(53.0)	208(25.8)	27(3.3)	1(0.1)	806(100.0)

12) 횡단분석에 비해 종단분석(OLS)의 사례수가 늘어난 이유는 전자의 분석모형에 포함되어 있는 가구변인과 가구자원변인들중에서 실측치를 많이 갖고 있는 일부 변인(예: 부친의 학력, 유력인사 친척, 가구내지위)을 제외한 데에 따른 것이다.

<표 4> 분석변인 기술통계

	3차			5차			3-5차 변동				
	전체 (N=1896)	취업자 (N=940)	인노동 (N=488)	전체 (N=1947)	취업자 (N=966)	인노동 (N=498)	전체 (N=3412)	취업자 (N=1589)	인노동 (N=806)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개인속성	성별	0.46(0.5)	0.63(0.48)	0.63(0.48)	0.46(0.5)	0.63(0.48)	0.63(0.48)	0.47(0.5)	0.7(0.46)	0.64(0.48)	
	연령(연속)	3.71(0.38)	3.70(0.28)	3.71(0.28)	3.76(0.36)	3.75(0.27)	3.76(0.27)	2.57(0.95)	2.55(0.8)	2.41(0.82)	
	연령(범주)										
	학력연수	10.34(4.4)	11.08(3.8)	11.08(3.8)	10.51(4.5)	11.11(3.8)	11.15(3.8)	11.21(4.1)	11.85(3.59)	11.96(3.5)	
	혼인	2.49(0.81)	2.61(0.75)	2.61(0.75)	2.52(0.77)	2.66(0.71)	2.66(0.71)				
변인	출생지	2.41(1.04)	2.45(1.03)	2.44(1.04)	2.41(1.04)	2.45(1.04)	2.45(1.04)	2.42(1.04)	2.45(1.05)	2.4(1.06)	
	세대변동							0.25(0.67)	0.25(0.66)		
고용상태	결혼변화상태							0.96(0.57)	0.92(0.66)		
	취업지위	2.31(1.28)	3.36(0.69)	3.36(0.69)	2.39(1.28)	3.38(0.69)	3.38(0.69)				
	본인직업위세		38.39(12.5)	38.39(12.5)		38.35(12.6)	38.35(12.6)				
	월근로소득		4.57(0.91)	4.57(0.91)		4.8(0.91)	4.8(0.91)				
	노동자가입여부			-0.62(0.74)			-0.66(0.7)				
변인	종업원 규모			1.79(1.07)			1.73(1.04)				
	고용지위변동						0.05(0.72)	0.01(0.23)	0.02(0.28)		
	직업위세변동							-0.06(6.02)	0.02(6.34)		
	근로소득변동							45(146.1)	29.6(50.22)		
	고용규모변동								-0.04(0.5)		
가정	거주지	2.2(0.8)	2.23(0.8)	2.23(0.8)	2.2(0.8)	2.24(0.8)	2.24(0.8)				
	가구내지위	2.18(0.79)	2.43(0.75)	2.43(0.75)	1.77(0.78)	1.52(0.72)	1.52(0.72)				
	주택보유형태	1.48(0.76)	1.52(0.76)	1.52(0.76)	1.46(0.77)	1.47(0.77)	1.47(0.77)	1.41(0.71)	1.45(0.72)	1.51(0.8)	
	고취업가구원수	1.49(0.92)	1.84(0.79)	1.84(0.79)	1.50(0.95)	1.84(0.79)	1.84(0.79)				
	정가구연총소득	7.38(0.92)	7.52(0.79)	7.52(0.79)	7.61(0.96)	7.78(0.74)	7.78(0.74)				
	연비근로소득	-1.37(4.71)	-1.79(4.49)	-1.79(4.49)	-0.43(4.95)	-0.76(4.85)	-0.76(4.85)				
	변인	가구월생활비	4.56(0.71)	4.64(0.64)	4.64(0.64)	4.80(0.68)	4.89(0.59)	4.89(0.59)			
		문화비비중	0.02(0.04)	0.02(0.04)	0.02(0.04)	0.1(0.05)	0.1(0.05)	0.1(0.05)			
		금융자산	6.77(1.49)	6.72(1.46)	6.72(1.46)	6.92(1.49)	6.91(1.41)	6.91(1.41)			
		부채	7.59(1.29)	7.58(1.29)	7.58(1.29)	7.65(1.23)	7.68(1.25)	7.68(1.25)			
가정변동	거주지변경							-0.02(0.26)	-0.006(0.3)	-0.01(0.3)	
	주택형태변경							1.7(0.71)	1.69(0.73)	1.68(0.73)	
	취업가구원							0.004(0.8)	-0.006	-0.002	
	변동							(0.68)	(0.72)		
	가구총소득							907.67	963.23	777.3	
변인	변동							(4992.4)	(3123.1)	(3008.53)	
	생활비변동							37.7(78.6)	39.8(77.26)	31.8(67)	
	금융자산변동							364	308.13	377.51	
							(7466.9)	(5138.8)	(3019.3)		
자원/심리변인	유력인사	0.4(0.90)	0.41(0.91)	0.41(0.91)	0.4(0.9)	0.41(0.91)	0.41(0.91)				
	생활여건만족	2.81(0.59)	2.8(0.58)	2.8(0.58)	2.91(0.6)	2.91(0.58)	2.91(0.58)				
	사회관계만족	3.47(0.56)	3.52(0.53)	3.52(0.53)	3.46(0.56)	3.51(0.54)	3.51(0.54)				
	부모학력연수	5.87(5.03)	5.77(4.81)	5.77(4.81)	5.86(5.01)	5.76(4.79)	5.76(4.79)				
	부모직업위세	30.1(11.6)	29.5(11.1)	29.5(11.1)	30.1(11.6)	29.5(11.1)	29.5(11.1)	30.9(12.3)	30.3(11.6)	30.4(11.3)	
	생활만족변동							0.09(0.62)	0.11(0.62)	0.09(0.62)	
	관계만족변동							0.01(0.63)	0.006(0.63)	-0.02(0.64)	
종속	사회계층의식	2.17(0.84)	2.23(0.82)	2.23(0.82)	2.17(0.88)	2.23(0.82)	2.23(0.82)				
	계층의식변동							0.13(0.79)	0.15(0.79)	0.13(0.82)	

IV. 분석 결과

1. 사회계층의식의 영향요인에 관한 횡단 비교분석

<표 5>는 3차년도와 5차년도의 사회계층의식에 대한 영향요인들을 분석한 것이다. 세 집단의 모형에서 모델 적합도가 확인되는 가운데, '전체집단'의 분석결과에서는 사회계층의식의 위계(서열)구조가 개인변인, 가구변인과 가구자원 및 심리변인 그리고 고용상태변인들에 의해 고르게 영향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개인변인들 중에서는 학력이 사회계층의식의 위계구조와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고학력자일수록 상위계층 귀속의식을 보유할 것이라는 종래의 논의와 일맥상통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출생지가 흥미롭게도 사회계층의식 차이를 유발하는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원/충청'지역과 '호남'지역 출신자들이 수도권지역 출신자들에 비해 낮은 사회계층의 지위귀속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이러한 분석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온 불균등한 지역발전과 관련지어 정치-경제적인 권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온 이들 지역의 출신자들이 계층적 열등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기혼 유배우자에 비해 미혼자들이 아무래도 가족관계에 기반하는 사회적 지위를 갖추지 못함으로써 하위 계층의 귀속의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구변인중에서는 '거주지', '주택형태', '가구총소득', '가구비근로소득', '가구 월평균 생활비', '금융자산'과 '부채'가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가구 소득과 생활비 그리고 금융자산은 기존 연구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가구의 경제적인 기반을 나타내는 변인들인 만큼 사회계층의식의 위계서열과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다만, 부채규모가 계층의식과 정비례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다소 의외의 결과라 할 수 있으나, 부채가 개인들이 경험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리라 보다 오히려 그들의 자산증식과 소비활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이같은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사회계층의식의 상승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거주지와 주택형태 역시 우리 사회의 불평등구조를 잘 드러내는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자(거주지)의 경우에는 흥미롭게도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비해 도농지역의 거주자는 계층의식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 반면 여타 대도시지역의 거주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지위의식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도농지역 거주자들에 비해 높은 생활 기대수준(life expectancy)을 갖고 있는 대도시지역 거주자들이 서울지역과 생활여건의 상대적 격차로 인해 상대적인 계층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후자(주택형태)의 경우 자가주택의 거주자들보다 전세 월세주택의 거주자들이 낮은 사회계층의 귀속의식을 가질 승산이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같은 결과는 주택 또는 부동산이 핵심적인 재산으로 인식-활용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세태를 비추어볼 때 자연스런 현상이라 이해될 수 있다.

가구자원 및 심리변인들 중에서는 '친척 중 유력인사'와 '생활여건만족도'와 '사회적 관계 만족도' 그리고 '부친의 직업위세'가 사회계층의식에 유의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같은 <표 5> 3차년도 사회계층의식 ordered logit분석 결과로부터 상류층이나 권력층과 연결될 수 있는 연결

망이 있는 경우(친척중 유력인사가 있거나, 부모의 직업위세가 높을 경우)와 이러한 물질적 및 관계적 차원으로부터 조성되는 심리적 만족감이 클수록 상위계층에의 귀속의식을 지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전체집단의 고용지위에 있어서는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낮은 계층의 귀속의식을 보이고 있어 우리 노동시장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정규-비정규노동간의 차별적인 분절성이 사회계층의식의 격차로까지 비화되고 있음을 확인케 된다.

<표 5> 3차년도 사회계층의식 ordered logit분석 결과

변수	전체집단	취업자	임금노동자	
	B (SE)	B (SE)	B (SE)	
여성(남성=1)	0.13 (0.18)	0.47 (0.30)	0.70 (0.38)†	
연령	-0.38 (0.26)	0.11 (0.44)	-0.52 (0.66)	
학력연수	0.08 (0.02)***	0.09 (0.03)**	0.02 (0.04)	
개인 변인	미혼	-0.54 (0.26)*	-0.28 (0.38)	-0.28 (0.49)
기혼독신(유배우)	0.29 (0.27)	0.03 (0.43)	0.05 (0.6)	
강원,충청	-0.43 (0.15)**	-0.53 (0.21)*	-0.55 (0.30)†	
영남	-0.16 (0.14)	-0.15 (0.21)	-0.48 (0.29)	
호남(수도권)	-0.36 (0.15)*	-0.43 (0.22)†	-0.64 (0.31)*	
고용 상태 변인	실업/미취업	-0.04 (0.14)	-	-
비정규	-0.48 (0.2)*	-0.38 (0.23)	0.08 (0.31)	
비임금(정규)	0.14 (0.13)	0.16 (0.16)	-	
본인직업위세	-	0.02 (0.007)**	0.009 (0.01)	
월평균근로소득	-	0.17 (0.11)	0.82 (0.32)*	
조합원 여부	-	-	-0.007 (0.15)	
1-29인	-	-	-0.29 (0.31)	
30-299인	-	-	0.12 (0.31)	
300-999인	-	-	-0.09 (0.37)	
가구 변인	도지역	-0.2 (0.13)	-0.22 (0.19)	0.05 (0.27)
대도시(서울)	-0.85 (0.14)***	-0.83 (0.21)***	-0.75 (0.29)*	
가구원	-0.02 (0.23)	-0.29 (0.37)	-0.05 (0.51)	
배우자(가구주)	-0.01 (0.21)	-0.22 (0.33)	0.45 (0.44)	
기타주택	-0.8 (0.46)†	0.03 (0.56)	-0.53 (0.75)	
전세	-0.36 (0.12)**	-0.33 (0.17)*	-0.31 (0.23)	
월세(자가)	-1.17 (0.23)***	-1.11 (0.33)**	-0.89 (0.39)*	
취업가구원수	-0.05 (0.07)	-0.04 (0.1)	-0.02 (0.15)*	
가구연총소득	0.16 (0.08)*	0.29 (0.18)	0.14 (0.29)	
가구연총비근로소득	0.05 (0.01)***	0.06 (0.02)***	0.07 (0.02)**	
월생활비	0.51 (0.11)***	0.34 (0.18)†	0.19 (0.27)	
생활비중 문화비	1.02 (1.14)	-0.001 (1.43)	0.04 (1.77)	
금융자산	0.1 (0.03)**	0.02 (0.05)	0.03 (0.07)	
부채	0.16 (0.04)***	0.15 (0.06)**	0.29 (0.09)**	
친척중 유력인사	0.178 (0.05)***	0.19 (0.07)**	0.10 (0.11)	
자원/ 심리 변인	생활여건 만족	1.09 (0.1)***	1.11 (0.14)***	1.02 (0.22)***
사회적 관계 만족	0.48 (0.1)***	0.58 (0.14)***	0.60 (0.21)**	
부모 학력연수	0.02 (0.01)	0.02 (0.02)	0.05 (0.03)†	
부모 직업위세	0.01 (0.01)†	-0.001 (0.007)	0.006 (0.01)	
threshold 1	6.740 (1.22)***	9.862 (2.10)***	8.96 (3.14)**	
threshold 2	9.532 (1.23)***	12.942 (2.12)***	12.241 (3.16)***	
threshold 3	13.040 (1.25)***	16.436 (2.16)***	16.049 (3.21)***	
threshold 4	16.62 (1.35)***	20.063 (2.26)***	19.635 (3.41)***	
-2LL	3,577.139***	1,721.319***	848.816***	
X2 (자유도)	808.472(30)***	448.886(31)***	232.507(34)***	
Nagelkerke R²	0.39	0.42	0.43	
N(사례수)	1,896	940	488	

주: † p<.1 * p<.05 ** p<.01 ***p<.001

취업자집단의 분석결과를 전체 집단과 대체로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본인의 직업 위세가 사회계층의식에 정적인 인과관계를 보이는 것이 새롭게 드러나기도 하였다. 임노동자 집단으로 제한할 경우에는 전체집단 및 취업자집단에서 유의하지 않았던 변인들이 새롭게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바, 성별·월평균근로소득·취업가구원수·부모학력이 그에 해당된다.¹³⁾ 구체적으로는, 여성노동자가 이체롭게도 남성노동자에 비해 상위 계층의식을 보이고 있으며, 월근로소득 및 부모학력은 예상대로 사회계층의식의 위계서열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한편, 취업가구원수는 오히려 부적(-)인 인과관계를 보여 임금노동자의 시각에서 가구내 취업자가 많다는 사실이 자신 또는 가구의 사회계층지위를 높이기 보다는 가구차원의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하여 오히려 낮은 계층귀속의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해석하게 된다.

요컨대, 3차패널 대상의 횡단분석 결과 출생지(강원/충청, 호남), 거주지(대도시), 주택형태(월세), 가구비근로소득(년), 가구부채규모, 생활여건만족, 사회적 관계만족이 세 집단 모두에 사회계층의식에 강한 영향을 주는 공통요인으로 분석됨으로써, 사회계층의식이 개인의 출신배경 및 심리·정서적 요인들과 가구의 경제·사회적 특성에 의해 영향받는 매우 복합적인 인과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표 6>에서는 5차년도의 사회계층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전체집단의 분석에서는 3차년도와 비교하여 학력, 거주지(대도시), 주거형태(전세), 가구 년총소득, 가구 비근로소득, 월생활비, 금융자산, 친척 유력인사, 생활여건 만족, 부모 직업위세가 동일한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3차년도에 유의하였던 출신지·고용상태(비정규)·주거형태(월세)·부채·사회적 관계 만족은 그 효과를 상실한 대신에 취업가구원수가 새롭게 유의한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집단의 경우에는 5차년도의 횡단분석 결과가 3차년도와 더 많은 상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테면, 학력, 본인 직업위세, 거주지(대도시), 주거형태(전세), 가구 비근로소득, 친척 유력인사, 생활만족도가 동일한 결과를 보이는 변인으로 확인되는 가운데, 출신지·거주형태(월세)·월생활비·부채·사회적 관계 만족이 그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는 반면에 고용상태(비정규), 취업가구원수(-), 가구 년총소득, 부모의 학력과 직업위세는 새롭게 유의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노동자집단의 경우에는 3차년도와 5차년도간의 비교를 통해 단지 4개 변인(예: 거주지(대도시), 가구 비근로소득, 생활만족-사회적 관계 만족도)만이 동일한 효과를 보이는 반면, 많은 변인들의 경우 3차년도의 유의한 영향이 사라지거나(예: 성별, 월근로소득, 주거형태(월세), 취업가구원수, 부채, 부모 학력), 이전에 없던 유의한 영향이 등장하거나(예: (본인)학력, 본인 직업위세, 주거형태(전세), 가구 총소득), 유의한 효과를 보이긴 하지만 그 영향의 방향이 바뀌는 등(예: 출신지(강원/충청의 경우 ‘-’에서 ‘+’로 전환) 상이한 인과관계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동일 분석집단의 사회계층의식에 있어 2000년(3차)과 2002년(5차)의 분석시점에서 영향

13) 반면에, 임노동자집단에서는 전체집단 및 취업자집단과는 달리 학력·년수, 가구총소득, 월생활비, 금융자산, 친척중 유력인사, 부모 직업위세 등의 유의한 효과가 사라졌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해 지면제약으로 개별적 해석은 생략한다.

요인들의 인과관계에 있어 적잖은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이번 분석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해당 년도의 사회경제적인 배경요인이 작용되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짐작하게 된다. 유보적인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결과는 사회계층의식에 대한 영향요인의 인과메커니즘이 고정되어 있기 보다는 국면 또는 사회 환경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아울러, 3차년도와 5차년도에 일관되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 거주지(대도시 -), 가구 비근로총소득(+), 생활여건 만족도(+)가 3개 집단에 공통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학력(+), 거주형태(전세 -), 친척유력인사(+)가 전체집단과 취업자집단에 대해 비교기간동안에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이들 6개의 변인이 사회계층의식의 구조화(structuration)에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영향요인이라는 사실을 3차년도와 5차년도 패널 동일 표본집단에 대한 횡단분석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표 6> 5차년도 사회계층의식 ordered logit분석 결과

변수	전체집단	취업자	임금노동자	
	B (SE)	B (SE)	B (SE)	
개인 변인	여성(남성=1)	0.32 (0.2)	0.31 (0.34)	0.24 (0.47)
	연령	0.39 (0.27)	0.64 (0.44)	0.97 (0.68)
	학력연수	0.15 (0.02)***	0.16 (0.03)***	0.21 (0.05)***
	미혼	-0.32 (0.28)	-0.23 (0.38)	0.61 (0.51)
	기혼독신(유배우)	-0.15 (0.28)	-0.64 (0.44)	-0.24 (0.74)
	강원 충청	0.19 (0.15)	0.29 (0.22)	0.55 (0.30)†
	영남	-0.13 (0.14)	-0.18 (0.21)	0.23 (0.3)
고용 상태 변인	호남(수도권)	-0.06 (0.15)	-0.06 (0.21)	0.6 (0.3)
	실업/미취업	-0.12 (0.14)	-	-
	비정규	-0.28 (0.19)	-0.49 (0.25)*	-0.5 (0.31)
	비임금(정규)	0.24 (0.13)	0.19 (0.17)	-
	본인직업위세	-	0.02 (0.007)**	0.03 (0.01)**
	월평균근로소득	-	0.08 (0.09)	-0.006 (0.18)
	조합원 여부	-	-	-0.06 (0.15)
가구 변인	1-29인	-	-	-0.11 (0.32)
	30-299인	-	-	0.13 (0.30)
	300-999인	-	-	-0.33 (0.43)
	도지역	0.05 (0.12)	0.25 (0.18)	0.19 (0.25)
	대도시(서울)	-1.12 (0.14)***	-0.96 (0.2)***	-1.34 (0.29)***
	가구원	0.31 (0.25)	0.18 (0.39)	-0.19 (0.55)
	배우자(가구주)	-0.13 (0.22)	-0.22 (0.36)	-0.02 (0.51)
	기타주택	0.58 (0.36)	0.61 (0.48)	-0.81 (0.63)
	전세	-0.41 (0.12)***	-0.38 (0.17)*	-0.47 (0.23)*
	월세(자가)	-0.09 (0.21)	0.09 (0.31)	0.39 (0.5)
자원/심 리 변인	취업가구원수	-0.12 (0.07)†	-0.19 (0.11)†	-0.27 (0.16)
	가구연총소득	0.49 (0.11)***	0.58 (0.15)***	0.63 (0.24)*
	가구연총비근로소득	0.04 (0.01)***	0.03 (0.02)†	0.03 (0.02)*
	월생활비	0.55 (0.13)***	0.22 (0.14)	0.08 (0.16)
	생활비증 문화비	1.34 (1.03)	1.58 (1.45)	0.35 (2.13)
	금융자산	0.03 (0.04)**	0.007 (0.05)	0.02 (0.08)
	부채	0.03 (0.04)	0.08 (0.06)	0.10 (0.10)
	친척중 유력인사	0.11 (0.05)*	0.14 (0.08)†	-0.05 (0.13)
	생활여건 만족	1.21 (0.1)***	0.99 (0.15)***	0.98 (0.22)***
	사회적 관계 만족	0.15 (0.1)	0.19 (0.14)	0.42 (0.20)*
변인	부모 학력연수	-0.01 (0.01)	-0.03 (0.02)†	-0.05 (0.03)
	부모 직업위세	0.02 (0.01)***	0.02 (0.007)**	0.01 (0.01)
	threshold 1	11.723 (1.38)***	12.686 (2.1)***	14.845 (3.14)***
	threshold 2	14.513 (1.39)***	15.509 (2.13)***	17.803 (3.17)***
threshold 3	18.704 (1.43)***	19.798 (2.19)***	22.274 (3.26)***	
threshold 4	22.101 (1.52)***	23.374 (2.3)***	-	
-2LL	3,411.231***	1,665.404***	829.587***	
X2 (자유도)	856.843(30)***	462.597(31)***	249.728(34)***	
Nagelkerke R²	0.40	0.43	0.45	
N(사례수)	1,947	966	498	

주: † p<.1 * p<.05 ** p<.01 ***p<.001

2. 사회계층의식 변동에 관한 종단 분석

종단분석의 일환으로서 2000년(3차)와 2002년(5차)의 두 시점 간에 사회계층의식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출하는 그 OLS 분석결과를 <표 7>에서 보여주고 있다. 먼저 '전체집단'을 살펴보면, 청년층이 중년층보다 사회계층의식의 하향변동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청년층이 계층의식의 하향추세를 유의하게 보여주는 것은 청년노동시장의 최근 상황과 무관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학교-취업경로의 이행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거나 비정규취업의 불안정한 상황을 경험함에 따라 계층의식의 하락을 자각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출생지' 변인은 변동값으로 구성된 <표 7>의 모형에서 횡단분석과 달리 강원/충청 출신자들이 수도권 출신자들보다 2000-2002년 사이에 사회계층의 귀속의식이 상향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한편, 고학력자들의 경우 오히려 같은 기간에 계층의식의 하락이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기할만 하다. 또한 3차와 5차년도의 사이에 연령층세대(cohort)가 변하지 않는 집단과 노년층(60세 이상)으로 진입한 집단이 중년층(40-59세)으로 진입한 집단보다 계층의식의 하향변동이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특히 후자 세대변동집단의 경우에는 자신의 경제력 상실 및 사회적위 하락 등으로 인해 이처럼 계층지위의식이 하락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7> 3-5차년도 간의 사회계층의식 변동에 관한 OLS 분석 결과

	전체집단		취업자		임금노동자	
	B	β	B	β	B	β
상수	0.368		0.298*		0.071	
성별	0.029	0.018	0.062	0.036	0.082	0.050
청년층	-0.121	-0.057†	-0.133	-0.054	-0.063	-0.030
장년층	0.031	0.017	0.034	0.02	0.107	0.067
노년층	0.026	0.012	0.009	0.003	0.013	0.003
개인 고정						
(중년층)						
학력연수(5차)	-0.008	-0.04†	-0.006	-0.027	0.002	0.008
영남(출생지)	0.025	0.015	0.061	0.037	0.204	0.126**
호남	0.020	0.011	0.015	0.008	0.190	0.101*
강원/충청(수도권)	0.133	0.067**	0.149	0.078*	0.193	0.099*
세대무변동	-0.108	-0.046†	-0.126	-0.054	-0.118	-0.052
장년층화	-0.151	-0.039	-0.182	-0.045	-0.143	-0.041
노년층화	-0.182	-0.037†	0.09	0.016	0.387	0.053
개인 변동						
(중년층화)						
기혼유지	-0.126	-0.071*	-0.12	-0.064	-0.144	-0.084
결혼(초/재혼)	0.018	0.004	0.002	0.001	0.032	0.009
이혼/사별/별거(미혼유지)	-0.165	-0.051†	-0.07	-0.017	0.325	0.067
고용 고정						
미취업	-0.015	-0.009				
비정규	-0.072	-0.024	-0.111	-0.042	-0.166	-0.061
비임금(정규직, 5차)	-0.028	-0.015	-0.061	-0.034		
고용 변동						
고용지위변동	0.012	0.011	-0.059	-0.017	-0.033	-0.010
직업위세변동			0.009	0.069**	0.011	0.083*
월근로소득변동			0.000	0.034	0.002	0.100**
종업원규모변동					0.005	0.003
가구 고정						
전세	-0.008	-0.004	-0.03	-0.017	-0.010	-0.006
월세	0.138	0.034	0.191	0.049	0.358	0.096*
기타(자가)	0.159	0.034	0.149	0.033	0.100	0.025
가구 변동						
거주지변경	-0.002	-0.001	0.043	0.014	0.077	0.026
주거형태변동	0.022	0.016	0.004	0.003	0.057	0.046
취업가구원변동	0.056	0.056**	0.04	0.034	0.014	0.013
가구연총소득변동	0.000	0.009	0.000	0.033	0.000	0.060†
생활비변동	0.000	0.005	0.000	-0.011	-0.001	-0.065†
금융자산변동	0.000	0.053**	0.000	0.017	0.000	0.058†
자원등 고정						
부모직업위세(5차)	0.000	-0.002	0.001	0.012	-0.001	-0.017
변동						
생활여건만족변동	0.21	0.162***	0.205	0.161***	0.195	0.148***
사회관계만족변동	0.114	0.09***	0.112	0.09***	0.127	0.102**
F(sig.)	7.724***		3.839***		3.268***	
R ²	0.06		0.07		0.12	
Adj. R ²	0.06		0.05		0.08	
사례수	3,412		1,589		806	

주: † p<.1 * p<.05 ** p<.01 ***p<.001

2년 동안의 결혼상태 변화가 사회계층의식에 끼친 영향을 보면, ‘기혼유지’ 집단과 ‘이혼/사별/별거를 경험한’ 집단이 ‘미혼유지’ 집단에 비해 사회계층의식의 하향 변동이 유의하게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후자의 ‘이혼/별거/사별자’ 집단에서 사회계층의식이 하락되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으나, 기혼유지집단에서 계층의식의 하향변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소 의외로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결혼가정의 유지를 위해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과 관련하여 조심스럽게 관련지어 이해하는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가구 관련 변동변인 중에서는 금융자산과 취업가구원수의 변화가 사회계층의식 변동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취업가구원수가 종단 분석(+)에서는 횡단분석(-)에서와 반대되는 결과를 보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분석결과이다. 특정 시점에서 취업가구원수가 경제적 어려움(하위 계층의 귀속의식)을 대변하는 반면, 일정 기간동안에 취업가구원 수의 증감은 가구구성원들에게 경제적 부담의 완화-증가 또는 가구의 사회적 지위 상승(계층지위 상승) 또는 하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추후 검토가 요망되는 대목이라 하겠다. 개인심리 변인으로서 고려된 ‘생활여건만족 변동’과 ‘사회적 관계 만족 변동’에서는 공통적으로 그 만족도가 커질수록 사회계층 의식도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취업자 집단을 살펴보면, 역시 강원/충청 지역 출신자들이 변동값으로 구성된 모형에서는 수도권 출신자보다 계층의식의 상향변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는 횡단분석(특히 3차패널)과 관련지어 2000년에 여타지역과 비교하여 낮은 계층의식을 보이던 강원/충청지역의 출신자들이 최근 수년 동안 지역적 차등의식을 상당히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 취업자집단에서 주목할 또 다른 변인은 유의한 정적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직업위세 점수인 바, 부연하면 좋은 직업으로 전직할 경우 응답자의 사회계층의식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여겨진다.

임금노동자 집단에서는 취업자집단에 비해 더 많은 설명변인들이 유의한 효과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개인속성변인으로는 ‘출생지’ 변인과 관련하여 영남지역, 호남지역, 강원/충청지역 출신자들이 수도권지역 출신자보다 사회계층 의식의 상향변동이 유의하게 나타남으로써 이들 임금노동자집단 내부에서는 지역간 차등의식이 크게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상태변인 중에서는 ‘직업위세변동’과 보다 중요하게는 ‘월평균 근로소득 변동’이 사회계층의식의 변동에 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변인들 중에서는 가구 총소득 변동과 금융자산 변동은 예상대로 사회계층의식 변동에 정적인 인과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주거형태 월세와 생활비변동은 횡단분석결과와 상반된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다소 의외의 결과를 보여준다. 생활비 변동이 사회계층의식 변동과 부정(-) 인과관계를 보이는 것은 정태적인 요인의 정적 효과(생활비의 계층상징 효과)와 달리 동태적으로 소득원을 이루고 있는 임금노동자집단에 있어 생활비 부담 증가는 오히려 사회계층의 하락으로 느끼게 만드는 부담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월세 세입 노동자가 자가 노동자에 비해 사회계층의식의 상향 변동이 유의하게 나타나는 점과 관련해서는 초기 시점(2000년)에 월세노동자의 계층의식이 매우 낮아 2년동안 상대적으로 큰 폭의 상승을 보이는 것으로 유보적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V. 맺음말

사회계층의식 변동에 관한 횡단비교분석과 종단분석을 탐색적으로 시행한 결과, 개인과 가구의 다양한 속성요인들이 복합적인 인과관계를 구성-작용하고 있음을 확인케 된다. <표 8>에서는 분석대상의 3개 집단에 대한 횡단분석과 종단분석을 통해 사회계층의식(변동)에 대해 유의한 영향(p<.05)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변인들만을 간추려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비교하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드러난 주목할 만한 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계층의식은 <표 3>에서 예시하듯이 고정불변이라기 보다는 개인과 가구 그리고 사회차원의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여 변동되는 가변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표 8>에서 보여주듯이 그 사회계층의식의 형성-변동에 대한 영향요인의 인과관계구조 역시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게 된다. 이같은 분석결과는 계층 구조화에 관한 과정적 연구관점에 부합하는 것으로 향후의 계층/계급연구에 있어 동태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함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둘째, 전체취업자임금노동자집단에 대한 횡단분석과 종단분석을 통틀어 사회계층의식의 위계서열과 변동에 있어 생활여건과 사회관계의 만족도가 일관되게 유의한 정적(+)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들 만족도의 심리요인은 물질적(생활여건) 또는 관계적(사회관계) 측면의 주관적인 삶의 질 지표(subjective indicator for quality of life)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이후 계층연구 및 사회정책 차원에서 주관적 복지/행복지수(subjective well-being 또는 happiness)에 관한 다양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아울러, 주관적 생활만족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사회계층의식에 대한 여타 영향요인들의 인과관계에 심리적 만족변인들이 매개효과(mediation effect)를 보이는지를 검증하는 보다 입체적인 분석모형을 설계-실증하는 것도 또다른 연구과제로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분석대상의 집단별로 횡단-종단분석을 통해 사회계층의식의 형성과 변동에 일관되게 작용하는 유의한 변인들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 역시 특기할 만하다. 전체집단에 있어서는 금융자산이, 취업자집단에 대해서는 본인의 직업위세가, 그리고 임금근로자집단에 대해서는 주거형태(월세 또는 전세)가 3차와 5차패널의 횡단분석과 종단분석 모두에 사회계층의 귀속의식에 주되게 유의한 영향을 보여주어, 분석대상의 집단에 따라 계층의식 형성 및 변동에 대해 상이한 영향요인이 작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바, 이후 계층의식의 연구에서도 분석집단별 인과관계의 공통점과 상이점을 보다 구분하는 접근의 엄밀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를테면, 국내외 연구에서 계층지위 또는 계층의식에 대한 주요 결정요인으로 검토되어온 교육(학력), 직업(위세), 소득의 영향강도 차이 역시 이처럼 분석대상 집단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번 연구의 한계로는 종단분석의 탐색적인 성격에 따라 변인구성의 임의성 및 분석모형의 낮은 설명력에 따른 문제점을 안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종단분석의 기간(2년)이 짧아 설명변인의 변동효과를 충분히 확인하는 데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표 8> 사회계층의식변동에 관한 횡단-종단 분석결과와 종합비교

	3차 패널 횡단분석	5차 패널 횡단분석	3-5차 패널 종단분석
전체집단	학력연수(+)** 미혼(-)* 강원/충청(-)**, 호남(-)* 비정규(-)* 대도시(-)** 전세(-)**, 월세(-)** 가구 총소득(+)* 가구 비근로소득(+)** 월생활비(+)** 금융자산(+)** 부채(+)** 친척 유력인사(+)** 생활여건 만족도(+)** 사회관계 만족도(+)**	학력연수(+)** 대도시(-)** 전세(-)** 가구 총소득(+)** 가구 비근로소득(+)** 월생활비(+)** 금융자산(+)** 친척 유력인사(+)* 생활여건 만족도(+)** 부모 직업위세(+)**	강원/충청(+)** 기혼유치(-)* 취업가구원수 변동(+)** 금융자산 변동(+)** 생활여건만족변동(+)** 사회관계만족변동(+)**
취업자집단	학력연수(+)** 강원/충청(-)* 본인직업위세(+)** 대도시(-)** 전세(-)*, 월세(-)** 가구 비근로소득(+)** 부채(+)** 친척 유력인사(+)** 생활여건 만족도(+)** 사회관계 만족도(+)**	학력연수(+)** 비정규(-)* 본인직업위세(+)** 대도시(-)** 전세(-)* 가구 총소득(+)** 생활여건 만족도(+)** 부모 직업위세(+)**	직업위세변동(+)** 생활여건만족변동(+)** 사회관계만족변동(+)**
임금노동자집단	호남(-)* 월평균근로소득(+)* 대도시(-)* 월세(-)* 취업가구원수(-)* 가구 비근로소득(+)** 부채(+)** 생활여건 만족도(+)** 사회관계 만족도(+)**	학력연수(+)** 본인직업위세(+)** 대도시(-)** 전세(-)* 가구 총소득(+)* 가구 비근로소득(+)* 생활여건 만족도(+)** 사회관계 만족도(+)*	영남(+)**, 호남강원/충청(+)* 직업위세변동(+)* 월근로소득(+)** 월세(+)* 생활여건만족변동(+)** 사회관계만족변동(+)**

특성들이 사회계층의식과 어떤 인과적 메커니즘을 형성하고 있는지, 횡단분석과 종단분석한 결과, 사회계층의식은 객관적인 계층유발 원인, 가족의 경제-사회적 특성, 그리고 심리-정서적 요인들과 복합적인 인과관계 속에서 형성되며, 계층의식의 변동도 복합적인 관계속에서 형성된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개인의 속성, 가구의 특성, 그리고 노동시장과 사회적 관계의 속성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라는 사회 양극화의 위기의식과 부합하는 측면이 보이며 그런 면에서 계층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일정한 수렴의 양상 속에서 구조적인 영향요인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사회계층의식 변동에 관한 중단분석의 주요 결과를 요약해보면, 우선 생활만족도의 변동이 계층의식 변동과 매우 강한 정적 관계를 갖는다는 점이 세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즉 '생활여건 만족'과 '사회적 관계만족'이 증가할수록 계층의식이 상승한다고 인식한다. '생활여건 만족변동' 변인에 가족수입, 여가활동,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변동이 내재되어 있으며, '사회적 관계만족변동' 변인에 역시 가족관계, 친인척관계, 사회적 친분관계에 대한 만족도 변동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응답자를 둘러싼 전반적인 경제·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대한 주관적 판단(삶의 질에 대한 만족)이 그들 자신의 사회적 계층지위에 대한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앞서 횡단분석에서도 밝혀진 것처럼 계층의식은 가변적인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경제·사회적 실체와 동떨어진 관념적인 속성만을 띠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즉 실질적인 경제·사회적인 존재 조건과 밀접하게 연관시켰을 때, 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일수록 계층의식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 양극화가 경제적인 소득불평등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중사회(dual society)로 이행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물론 이러한 진단은 보다 풍부한 논의와 검증이 요구되지만 사회복지 시스템과 삶의 질의 관계가 여전히 부적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해보면 이중사회로의 위기의식은 결코 과도한 진단만은 아닐 것이다.

둘째, 실질적으로 세 집단 모두에서 가구의 경제수준이 향상되면 사회계층 의식도 상향조정된다는 점이 확인된다. 특히 임금노동자와 비임금노동자에게 있어 직업지위의 상승과 월근로소득의 증대는 사회계층 의식의 상향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여전히 사회계층의식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 중 하나가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횡단분석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정규와 비정규노동으로의 시장 양극화는 계층의식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게 한다.

끝으로 세 집단 모두에서 발견된 점으로, 비수도권 지역 출신자들이 계층의식 상향변동과 긍정적 관계를 갖는다는 것인데, 이는 지역에 대한 차별적 인식의 해소 가능성이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계층의식과 관련하여 지역간에 엄밀한 비교분석을 토대로 하는 보완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이다.

한계이자 추후 연구점 : 분석자료의 변동기간이 짧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독립변인의 변동값들이 크지 않았다는 제약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계층의식 유발의 제 요인들의 인과관계를 탐색적으로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이 연구를 토대로 이후 완전 동일한 집단에서의 계층의식 유발요인의 인과 메커니즘을 밝히는 연구와 독립변인의 주 효과에 대한 연구, 그리고 세부적으로 여러 집단간 계층의식의 영향요인도 추가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성일 (1994), 「한국 노동자계급의 계급경험과 계급의식」, 후기 사회학대회 발표논문.
- 김경동·최태룡 (1983), 「직업의 사회경제적 속성과 계급구분」,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5권 3호, pp. 1~30.
- 김병조 (2000), 「한국인 주관적 계층의식의 특성과 결정요인」, 『한국사회학』 제34집, pp. 241-268.
- 김진욱·정지철 (2004), 「가구특성에 따른 소득계층 변화」, 『노동경제논집』 제27권(2), pp. 91~115.
- 이재경 (1992), 「가족과 사회계층」, 『가족학논집』 제4집, pp. 115-133.
- 신광영 (2005), 「새로운 계급론의 쟁점과 문제제기」, 중앙대 사회학과 콜로키엄 발표 논문.
- _____ (2004), 「계급, 성과 일자리 이동」, 『한국사회학』 제38집 1호, pp. 25-50.
- _____ (2003), 「한국의 사회계급과 불평등실태: 서베이 자료분석을 넘어서」, 『경제와 사회』 제 59호, pp. 32-54.
- _____ (1999), 「한국사회의 계급과 신분질서의 변동」, 『경제와 사회』 제44권 pp. 30-58.
- _____ (1997), 「계급과 정체성의 정치」, 『경제와 사회』 제35권, pp. 34-50.
- 안치민 (1992), 「한국사회의 계급구조화 연구」, 『한국사회학』 제26집(여름호), pp. 59-81.
- 장미혜 (2002), 「한국 사회에서 사회계급별 소비양식의 차이」, 『경제와 사회』 제 53호, pp. 201-231.
- 장상수 (1996), 「한국 사회에서의 주관적 계층위치」, 『사회변동과 성·민족·계급』, 한국사회사학회 논문집 49호, pp. 180-212.
- 조돈문 (1994), 「노동계급의 계급의식의 물질 기초: 한국, 스웨덴, 미국의 비교연구」, 『경제와 사회』 제23권, pp. 45-81.
- 조은 (2002), 「문화자본과 계급재생산: 계급별 일상생활경험을 중심으로」, 『문화와 계급: 부르디외와 한국사회』, 동문선, pp. 49-86.
- 차중천 (1987), 「지역주의가 한국계층화에 미치는 영향: 서울 시민의 출신지역별 지위획득과 사회이동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 21집, pp. 69-91.
- 차중천 (1997), 「직업구조와 분배의 불평등」, 석현호 (편),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공정성』, 나남출판, pp. 79-126.
- 최셋별 (2002), 「상류계층 공고화에 있어서의 상류계층 여성과 문화자본: 한국의 서양고전음악전공 여성 사례」, 『한국사회학』 제36집 1호, pp. 113-144.
- Bourdieu, Pierre (1984),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Davis, Nancy and Robert Robinson (1988), "Class Identification of Men and Women in the 1970s and 1980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3, No.1, pp. 103-112.

- Hodge, Robert and Donald Treiman (1968), "Class Identification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73, No. 5, pp. 535-547.
- Ganzeboom, Harry B. G., De Graaf, P. M. and Treiman, Donald J., 1992. "An International Scale of Occupational Status." *Social Science Research* 21: 1-56.
- Giddens, Anthony (1973), *The Class Structure of the Advanced Societies*, London: Harper & Row.
- Jackman, Mary (1983), *Class Awareness in the United Stat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Jackman, Mary and Robert Jackman (1973), "An Interpretation of the Relation between Objective and Subjective Social Statu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38, pp. 569-582.
- Kelly, Jonathan and M. D. R. Evans (1995), "Class and Class Conflict in Six Western Natio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0, No. 2, pp. 157-178.
- Kluegel, James, Royce Singleton, Jr., and Charles Starnes (1977), "Subjective Class Identification: a Multiple Indicator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2, pp. 599-611.
- Koo, Hagen (1982), "A Preliminary Approach to Contemporary Korean Class Structure", pp. 45-66, in Chang, Yun-Shik, Kwon, Tai-Hwan, and Peter Donadlson (eds.) *Society in Transi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Korea*,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Mann, Michael (1973), *Consciousness and Action among the Western Working Class*, London: Macmillan.
- Simpson, Ida Harper, David Stark, and Robert Jackson (1988), "Class Identification Processes of Married, Working Men and Wom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3, No. 2, pp. 284-293.
- Vanneman, Reeve and Fred Pampel (1984), "The American Perception of Class and Statu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9, pp. 512-525.
- Vanneman, Reeve and Lynn Cannon (1987), *The American Perception of Class*,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Yoon, Jeongkoo and Hyunho Seok (1996), "Conspicuous Consumption and Social Status in Korea: an Assessment of Reciprocal Effect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and Development*, Vol. 25, No. 2, pp. 333-354.